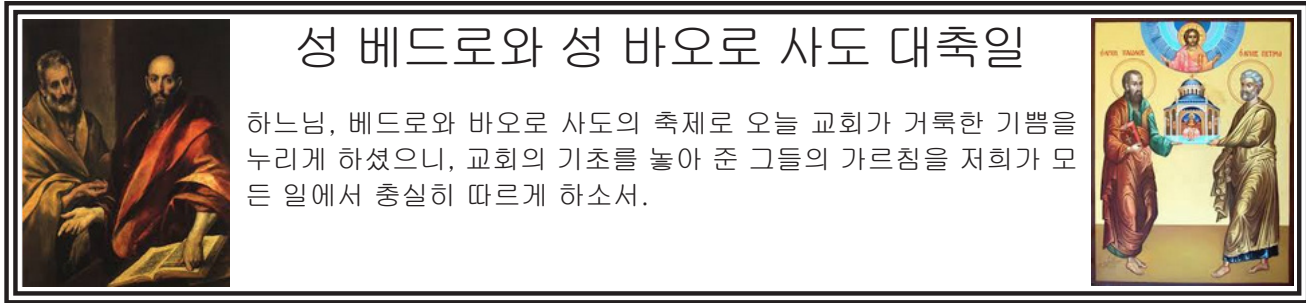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 6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네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7월 기도지향 :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사제들을 위해

####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목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7/4(금) 오전 10시, 십자가의 길(미사 후)
- 성모성심미사 : 7/5(토) 오전 10시, 목주의 기도(미사 30분 전)

월별 기도지향 가정은 적어도 신심미사 참례와 미사봉헌을 생활화합시다.

####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7/3, 사도 토마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착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사제서품 17주년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 일시 : 8/16(토) 오전 9시부터
- 장소 : Heritage Park Softball Complex
- 참가비 : 250\$

#### 기타

- 7/4(금) 성모신심미사는 Independence Day 행사관계로 회관에서 봉헌합니다.
- 그동안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총구역장과 성가대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환 요한/윤유나 글라라 가정이 L.A로 이사를 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91	221	155/156	200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문호진 (안토니오)	문석찬 (요 셉)
	문예나 (요 안 나)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주	정예찬 (미 카 엘)	정수한 (베 드 로)
	고평원 (프란치스코)	고영방 (스테파노)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차호섭 (요 셉)	최선윤 (마 리 아)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
차주	김명은, 김화년, 박옥희, 안현숙, 전현교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 셉)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박희영 (카타리나)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6/22	76명	481불	580불
김호원, 현교정, 이우영(총 3세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6월 2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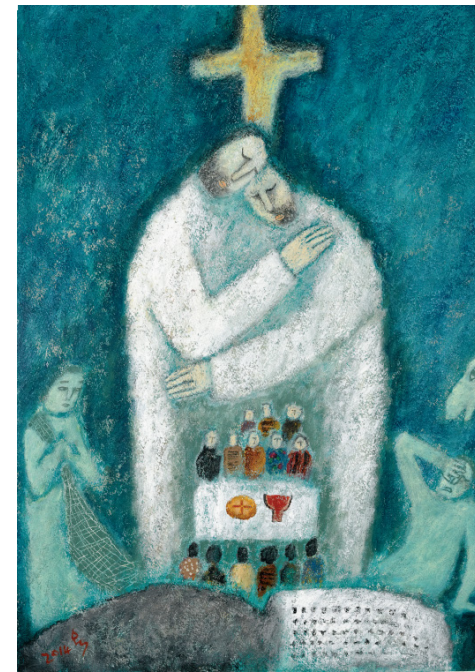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반석으로서 교회를 굳건히 지킨 베드로 사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한 바오로 사도를 기리는 날입니다. 두 사도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도 두 사도를 본받아 복음화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미사에 기쁘게 참여합니다.

### 성화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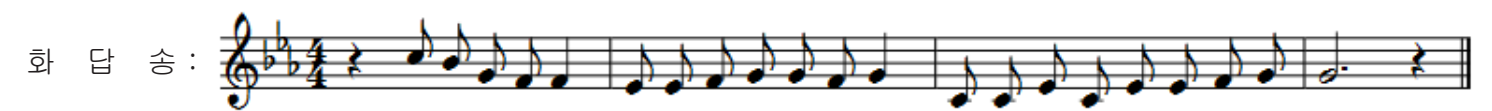
교회의 커다란 두나무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성 베드로 사도와 성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거목이십니다. 성 베드로는 교회 수장의 초석이 되시고 성 바오로는 말씀의 선포자로 사도 중의 으뜸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를 온갖 부정적 상황과 어려움, 위협에서도 굳건히 다지십니다. 성 바오로는 오늘도 모든 이들이 주님을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12,1-11 <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



◎ 주님께서는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 - 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
-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
-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
-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돌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복되다. 그 임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

제 2 독 서 : 2티모 4,6-8.17-18 <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 마태 16,13-19 <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 쉐 마

## “나는 셋째”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을 꽃피울 냉철한 이성 부족했습니다. 말은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할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죽을 때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해박한 지식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의 편지는 초대교회의 신학과 교리의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때로 다른 사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오로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잘 알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충실히 하고 성적이 뒤진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에게서도 사랑 받던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의 하숙집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진 대신 ‘나는 셋째’라는 글귀가 담겨 있는 이상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제 어머니께서 대학 입학 기념으로 저 사진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첫째는 하느님이다. 둘째는 네 이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너다.” 그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진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나는 셋째’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집 떠나는 그 학생의 길잡이가 되었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잡이 말씀은 ‘하느님 첫째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나 있고 또 언제나 찾아오는 십자가, 즉 고통과 슬픔, 패배와 절망, 사고와 질병 등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야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하고 분노합니다. 분노할수록 고통과 슬픔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분노는 이웃에 조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더 심해지면 타인을 증오하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위로의 말도 더 비참한 사람도 있다는 일깨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하느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장례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미사 끝에 고인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어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빠 그곳은 참 좋은 곳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아빠 계실 때 효도하고 착하게 지낼 것을. 아빠! 이제는 누나들과 싸우지 않고 아빠 대신 엄마를 위로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비록 아빠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지만, 하느님의 커다란 뜻을 따르고, 남아 있는 가족들끼리 열심히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어려움의 십자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불쌍한 어린이를 돌보는 데 전 생애를 바치는 아버지, 민주화를 외치다 죽어간 아들을 대신하는 어머니, 그 모습들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느님 앞에는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느린 것도 없습니다. 천 년도 하느님 앞에는 지나간 어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완벽한 것도, 똑똑한 것도,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길가의 돌 하나라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흘렸던 참회의 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삶으로의 회개입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 주춧돌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4-2장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요한 14,6-7).

#### < 주석 >

**길ियो:** 구약에서 ‘길’의 표상은 본디 이집트 탈출의 상징에 속한다(신명 1,30-33).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부름에 따라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험한 길이다. 신약에서 ‘길’은 그리스도교를 일컬었고(사도 9,2),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의미의 길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길인 것이다(주석 성경, 신약, 410 참조).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려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아드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성부를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다(주석 성경, 신약, 410-411 참조).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과 말씀으로 성부를 나타내 보이신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충만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부와 일치 속으로 믿는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주석 성경, 신약, 411).

#### < 설명 >

자신이 아프리카 밀림지대 한가운데에 홀로 버려졌다면 어떻게 할까? 그곳에는 길도 없고 119를 부를 수도 없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안내인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 그 안내인은 말할 것이다. “나를 따라 오십시오. 내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유일한 안내자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 < 교회 가르침 >

▶ 거짓말의 아버지는 넓고 쉬운 길로, 겉으로는 평탄하고 즐거운 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함정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 이신 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교서 23항).

#### < 어록 >

- ▶ 그 무엇에도 너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께서만 변치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성녀 대 테레사).
- ▶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성녀 마더 테레사).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